

월요광장



정봉남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 사무관

강원도 산불이 쉬이 잡히지 않아 뉴스를 보는 마음들이 다급했다. 고성, 속초, 강릉... 익숙하고 다정한 마음들이 불길에 녹고 있으니 동동 애타는 마음만 앞섰다. 어서 불길을 잡히고 모두들 무사하기를 빌면서 사태의 수습을 지켜보았다. 속초에 살고 있는 후배가 있어 안부를 물었고, 괜찮다는 답장이 오기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지인들도 이러한데 가족들 마음은 오죽했으랴.

지금은 산불 이후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소식과 구호 물품에 대한 소식들을 후배가 알려 준다. 긴박했던 상황이 그가 보낸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세간을 행길 거들도 없이 뛰쳐나온 터라 입고 나온 옷 외에 여벌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옷을 보낼 방법을 알려 왔다. 재난 앞에 장사 없다지만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면 어떻게든 헤쳐 나갈 수 있을

진정한 시민의 탄생

것이다.

전국의 소방관들이 강원도를 향해 올라가는 휴게소 풍경과 "주머니 늦어도 괜찮다, 소방관들 힘내라"는 말들이 들려오는가 하면, 15시간 진화하다 잠시 도로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소방관들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하며 구호 물품을 보내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돕는 일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단체들이 있었다.

그런데 '불판과 감자 통구이'라는 말로 상황을 조롱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비수를 찌는 이들이 있으니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무리를 지어 냉소하는 저들의 몰상식은 안타깝고 답답하다. 모욕의 문화를 재생산하고 애국된 신념을 과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시민적 예의의 부재, 민주적 가치의 질식은 우리 민주주의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일 것이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되고 발전하려면 되도록 많은 수의 구성원들이 가장 기초적인 시민적 덕성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 정의와 공동선, 민주적 가치들에 대한 일정한 감각과 지향을 갖춘 시민들이 없다면 다른 것들은 빈껍데

기에 불과하니까 말이다.

물론 나무들이 저마다 잎을 돋우는 잎새달인 4월은 여전히 아프다. 제주의 4·3이, 미완의 4·19혁명이 그렇고, 세월호 5주기를 맞는 불이라서 그렇다. 제대로 밝혀진 바 없는 진상 조사에 미안하고, 지켜 주지 못한 곁에 없는 이들이 그리워 한없이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 배우고 성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스러져 간 아이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지난한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울다 지쳐서 버석버석 말라 버린 민주주의의 감수성 회복을 위하여,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철학은 인간 안에 자기 극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모든 것을 잃은 지옥에서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음을, 아니 모든 것을 잃었기에 오히려 인간이 가진 참된 것이 드러난다는 걸 철학은 말해 준다. 깨달음은 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철학은 지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또 거기서 낙담하지 않고, 지옥을 생존 조건으로 삼아 거기서도 좋은 삶을 꾸리려는 자의 것이다."(고병권, '철학자와 하녀'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모두가 말리는

현장에서도 할 일을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끝까지 네 곁에 있겠다며 외롭지 않게 이들의 곁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진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희망 또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 때문에 결핍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열어 더욱 풍요로워지는 삶을 꿈꿀 때, 우리는 미안함을 서로 연대하여 스스로 창조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시민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 개개인의 자기 실현과 인간적 반성이 가능한 참된 조건을 서로 연대하여 스스로 창조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삶을 조직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차이의 인정, 관용, 연대 같은 민주적 가치와 시민적 예의와 상호 존중의 민주적 태도,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습관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삶의 가치에 대한 커다란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연대감이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한다.

특별기고

전두환 자택 방문기



김종배
5·18 농성단 대표·전 국회의원

전두환 씨!
나는 39년 전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종배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젊은 학생이었소. 하얀 백발이 되어 5·18 동지들과 함께 당신 집 앞에 찾아갔소. 그동안 한 번도 당신 집 앞에 가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크나큰 집에서 아무 탈 없이 살수 있는 우리 사회가 너무 싫었기 때문이었소. 아니, 기분 나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요.
오늘 나는 당신 집 앞에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소. "광주 학살 발표 명령자 전두환을 재수사하라"고 마이크에 대고 목청껏 외쳐도 무섭게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 기가 높은 당신의 숨소리 하나도 느낄 수 없어서 너무 허망했소. 5월 광주가 한때는 망월동 묘지에 가서 가족들이 제사도 못 지내는 시절도 있었소. 아마도 오늘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부인 이순자 씨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도 크게 못 쉬고 있을 듯싶소. 당신은 지금까지 광주 학살을 은폐하기 위해서 5월 광주 항쟁 기간에는 한 번도 광주에 내려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던 것이 들통이 나서 멧쪽였을 것이요.
더욱이 광주에 가서 공수 특전 사령관이었던 당시 천구 정호용하고 당신이 사령관으로 있었던 보안사 예하 부대 505 보안부대장인 이재우를 만나 발표 명령까지 내려놓고 상경했다군요? 당신이 상경한 직후 정호용은 자기 직속 부대 공수 11여단장 최용 준장을 시켜서 드디어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를 했습디다. 무장하지도 않았던 시민들을 무차별로 죽여

놓고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학살의 진상을 지금까지 왜곡하고 있었지요? 그것도 날짜와 시간을 조작하여 시민들의 무장이 발표보다 먼저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신이 사령관으로 있었던 보안사 문서에서 시민들이 무장하기 시작한 시간이 오후 3시 10분이라고 밝혀진 것 아시죠? 계엄군 발표보다 시민들 무장이 늦었다는 사실은 자위권 방어라고 할 수 있지요?
시민들은 당신들이 시민을 향해서 무차별 발표해서 분노의 표시로 예비군 초소를 뒤져서 손에 총을 쥐게 됐던 것이요. 발표 후 22일은 계엄군들이 시(市) 외곽으로 철수해서 총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무기를 회수했던 것이요. 그런데 지만원 씨는 광주 항쟁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침투하여 일으킨 계림라전이라고 악의적으로 왜곡 날조하고 다니던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소.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광주 항쟁이 북한군 소행이었다면 큰 공을 세웠는데

왜 발표 명령을 했다고 뭇뭇하게 말 못하고 숨기는 것은 무슨 짓이요?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줄개들이 영웅이라고 칭송을 하던데 행동은 골목대장만도 못하지 않소. 우리는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도 "영광입니다"라고 외치기라도 했소. 나는 당신이 사면되어 백담사 갈 때 자결이라도 할 줄 알았었소.
그렇게도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발표 명령을 할 수 있었소? 그리고 나서 신군부들, 다들 부자 됐습디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학살하고도 사과 한마디도 안한 특한 사람들... 당신들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요.
당신들과 끝까지 싸울 거요. 범조문하나라도 걸칠 수 있으면 당신들 고소할 거예요. 권력을 탈취하여 부정부패한 당신들의 재산까지도 들춰볼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역사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社說

신문의 날 맞아 언론의 사명 다시 되새긴다

어제 4월 7일은 제 63회 신문의 날이었다. 올해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은 미리 앞당겨 지난주에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비롯해 회원사 발행인 등 모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축하연이 특별했던 것은 문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광주일보의 전신이었던 옛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양심과 용기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80년 5월 계엄군이 만행을 저지르던 그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실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이는 1980년 5월 20일 우리 신문 기자들이 쓴 공동 사표 전문이다. 기자들은 이를 2만 장의 호외로 만들어 광주 시내 전역에 뿌렸었다. 당시 광주일보의 또 다른 전신인 전남일보 또한 신문 제작 거부로 통해 군부 독재에 항거했다. 많은 신문들이 시민군

을 폭도로 모는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을 때 우리 광주일보는 결연히 붓을 놓음으로써 저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바로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독재와 검열의 시대에 보여준 신문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고립된 광주 시민들에게 뜨거운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말했다.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은 1980년 12월 광주일보로 통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겹게 노력해 왔다. 하지만 근래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전통 언론의 입지가 다소 위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의 역할은 변함이 없으며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1980년 5월 20일 우리 신문 기자들이 쓴 공동 사표 전문이다. 기자들은 이를 2만 장의 호외로 만들어 광주 시내 전역에 뿌렸었다. 당시 광주일보의 또 다른 전신인 전남일보 또한 신문 제작 거부로 통해 군부 독재에 항거했다. 많은 신문들이 시민군

한전 배구단 수원 결정 지역민 무시한 처사다

한국전력의 남자 프로 배구단 '빅스톰'이 연구지를 수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전 본사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5년간 광주시와 지역 사회가 연구지를 광주로 이전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년간 수원에 잔류하기로 확정된 것이다.

한전 배구단 관계자는 어제 "기존 연구지인 수원과 3년간 재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한전 배구단 측은 재계약 희망의사를 표명한 수원시와 연구지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광주시의 지원 조건과 체육관 시설, 관중 동원 능력, 선수단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성명을 내고 "연구지 협약이 4월 말에 끝나는데도 광주시와 정상적인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짜인 각본처럼 기습적으로 수원시와 재협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용섭 광주

시장이 선수들을 직접 만나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철저한 보안 속에 전격적으로 재계약이 이뤄졌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전 배구단의 연구지 광주 이전은 한전이 본사를 나주로 옮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한전은 당시 전용 경기장 준비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을 들어 수원과 3년간 재계약을 하는 한편 2019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광주시와 지역 사회는 올 들어 시민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이전을 간절히 요청했지만 한전 측은 다시금 이를 거부한 것이다.

한전의 이 같은 태도는 지역 상생 발전을 외면하고 지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전 럭비팀은 이미 전남으로 연구지를 옮겼는데, 본사 이전 이후에도 배구단만 연구지를 수도권에 두는 것은 공공 기관 이전 취지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정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無等鼓

'사건 지평선 망원경'(Event Horizon Telescope)을 사용해 블랙홀을 관측해 온 유럽 남방 천문대가 오는 10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혀 '우주의 비밀'이 일부나마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블랙홀은 거대한 무게를 지닌 별들이 연료가 떨어져 붕괴되면서 만들어진다.
별이 스스로의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어마어마한 정도로 으스러지고, 주변 공간마저 심하게 휘면서 결국 공간의 구멍 속으로 꺼져 들어 가 태어난 것이 바로 블랙홀이다.
'사건지평선'은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에 끌려가던 빛과 물질이 마침내 '사(관측)에서 사라져 버리는' 지점이다. 먼 바다로 나아간 선박이 수평선을 넘어서면 보이지 않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들이고,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는' 블랙홀의 속성은 '부패한 권력'의 그것과 놀라우리만치 닮아 있다. 역사에서 볼 수 있듯 '부패한 권력'은 '특혜와 부정당한 이권'으로 불리는 중력을 발생시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더욱 그로 강력해진 권력은 '블랙홀'로

변해 내부에 무수한 부패와 비리를 감춘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 등은 크고 작은 권력의 블랙홀에 숨겨진 '특혜와 이권의 부스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빛마저도 블랙홀에 일단 끌려들면 다시는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지만 진화한 물리학 이론은 '블랙홀을 관측하긴 어렵지만, 블랙홀의 바깥 경계선인 사건 지평선은 이론적으로 관측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빛마저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블랙홀이지만, '사건 지평선'을 통해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세월 우리 사회에서 '부패한 권력의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드러내고 처단하려는 노력과 의지 그리고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겨울, 뜨거운 시민 혁명을 성공시킨 한국 사회는 또 다른 진화의 문을 열어젖혔고, 우리는 지금 '특혜와 부정당한 이권'을 뜨거운 촛불로 태워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법조칼럼

윤창호 법 시행 이후



황준홍
변호사

작년 대학생인 군인이 추석 명절을 맞아 휴가를 나왔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다고 한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청년의 대학 동기 등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하였다. 국민의 공분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일으킨 '윤창호 사건'이다.
'윤창호 사건'은 이내 법으로 반영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그것이다. 주요 골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

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 12월 시행되었다.
법정형이 강화됨에 따라 사법 기관의 양형 기준도 강화되었다. 그래서인지 음주 운전자들이 윤창호 법 시행 전보다 가중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처벌과 관련하여 음주 운전은 과거 서민형 범죄로서 관용적 입장에서 바라보았으나 점차 음주 운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변화하기에 이르렀고,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때문인지 실제로 이번 겨울 음주 운전 단속률은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처벌 수위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음주 운전은 살인에 비금가는 행위인데 법정형이나 실제 처벌도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 운전 단속률이 감소되긴 했으나, 여전히 음주 운전 범행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음주 운전과 관련된 최근 화두의 목표는 결국 음주 운전을 사회에서 추방하여 그 피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는다.

음주운전 방지책과 관련하여 사후 규제책, 그 중에서도 형사 처벌에 관한 것에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소 운전을 하는 우리들은 별다른 인식 없이 운전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본래 '운전'이라는 것은 고도화된 운행 장비의 가속, 조향, 제동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문명 사회에서 운전이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숙련성,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음주 운전에 대한 규제책은 사후 규제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주 운전이 무서운 이유가 재발률이 있음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즉, 재발률은 개인의 습벽 또는 습관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의 방지책으로서 형사 처벌 강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규제책을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운전면허 취득시 안전 운전 교육 강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음주 운전

방지 뿐만 아니라 그 외 교통사고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운전으로 인한 사후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사전적인 운전 면허 취득은 오히려 과거보다 쉬운 것은 운전에 관한 정책 불균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뒤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 위와 같이 안전운전 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외국어의 제도처럼 의학적인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습관이나 습벽에 기인한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알코올 중독에 이른 지경이라면, 의학적인 치료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어떠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 근거가 없다거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기사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없는 사회적인 해결 방법이다. 음주 운전도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업 무 국 220-0551	
정 처 부 220-0632	여 론 제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